



주제: 5. 사랑의 하나님, 지상 최대의 구원 작전!

달달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이야기 성경

* QR코드를 스캔
하여 말씀챈트를
만나보세요~!



말씀 배우기

1.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

2.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나요?

()

3. 이제 나에게 십자가란 무엇인가요?
또 무엇을 나타내는 상징인가요?

()

성경이 궁금해요~!

구약의 제사

제사는 죄를 지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상황에 따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어요. 자신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가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십자가 형벌’이란?

십자가는 십자(+) 모양으로 된 사형틀을 의미해요.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인은 십자가 형벌을 받기 전에 심한 채찍질을 당하거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잔인한 고문을 받아야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 대개 2~3일이 지나면 죽게 되는데, 그동안 낮의 뜨거운 태양과 날짐승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아야했어요. 이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물약을 탄 마취제(신 포도주)를 먹이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리고 숨이 멎으면 망치로 죄수의 다리를 힘껏 쳐서 꺾었는데, 이는 죽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의 경우는 다리가 꺾이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답니다.

나눠 봐요

- * 하나님인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 *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만큼 깊은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